

사이버 로봇 박물관 ‘로보시안’


글_ 김인순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기자 insoon@etnews.co.kr

로봇은 TV, 프로젝터, 공기청정기, 건강관리 등 기능을 수행하는 실용성을 겸비한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다. 국내 기업인 우진로봇틱스가 개발한 아이클레보는 로봇 청소기다. 아이클레보는 전면부에 장착한 적외선 센터와 실리콘 재질의 범퍼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을 피하고 가구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위험한 곳이나 재난 지역에 파견되는 로봇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롭해즈’는 우리나라 로봇 최초로 로봇 선진국 일본의 국제 재단구제센터에 수출되기도 했다. 미국의 위험물 제거 로봇은 팔을 움직일 때 조이스틱으로 각 관절을 따로 움직여야 하지만, 롭해즈는 조종자가 한 번 팔 동작을 하면 여러 개의 관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조종이 쉽고 작업이 빠르다.

이 사이트에는 로봇에 관한 용어들이 쉽게 정리돼 있다. 머신비전을 비롯해 음성합성, 음성인식분산처리기술, 사이보그 등 로봇에 관한 용어가 알고 싶다면 ‘로봇 용어’를 클릭하면 된다. 또 사용자들은 게시판을 이용해 자신이 개발한 로봇의 문제점을 질문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로봇 만들기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로봇 상상하기 코너에서는 기발한 종류의 로봇 제작에 관한 질문이 쏟아진다. 유명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에서 조각하는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갖가지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로봇을 사고 팔 수도 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로봇 부품이나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할 수도 있는 장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톰을 보고 자란 일본의 많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꿈을 키워 세계 최대 로봇 강국을 만들고 있다. 사이버 로봇 박물관을 통해 다양한 로봇을 접한 우리의 학생들도 향후 이 사이트를 통해 로봇 과학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쓴이는 숭실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어린 시절 TV 만화 시리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아톰’이다. 조그만 로봇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악에 대항해 싸우는 아주 단순한 만화영화였다. 일본 만화였던 아톰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당시 아톰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현재 일본 로봇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 아톰이 일본의 로봇 산업을 발달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연이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며 어느 때보다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화를 보고 로봇 개발자의 꿈을 키웠던 일본처럼 우리 미래 어린이들도 인터넷의 로봇 박물관을 통해 로봇 과학자의 꿈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

로봇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은 로보시안 사이트(<http://www.robotian.net>)다. 한국과학기술원 인간친화 복지로봇시스템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사이버 로봇 박물관을 표방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내외에 소개되는 각종 로봇에 관한 최신 정보는 물론 알고자 원하는 로봇을 카테고리별로 찾아 볼 수 있다. 복지와 의료 로봇에서부터 오락용, 도우미, 가정용, 탐사, 조사, 위험, 재해, 건설, 건축, 산업, 연구용 등 다양한 종류의 로봇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사이트에서는 최근 실용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정용 로봇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테카라토이즈에서 개발한 ‘테라’라는